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E-mail : chdaily@gmail.com

THURSDAY, May 2, 2019 Vol. 670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35회 사랑의마당축제'가 4월 27일, Whittier Narrows Recreation Area에서 열렸다. 이번 사랑의마당축제에는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28개 교회와 12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3면]



기독일보 창간 15주년 감사예배 및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제3대 이사장에 존 킴 회장이 취임했다.

“북핵 해결의 열쇠는 ‘북한 인권’ 문제 제기”

[2019 북한자유주간] 헤리티지재단 토론회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현재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 탈북단체 대표들에게서 나왔다.

이들은 특히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북한 시민사회가 과거 소곤거리던 시절을 지나 웅성거리는 단계에 이미 진입했다”며 “꾸준하고 지속적인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며 변환기를 맞고 있는 북한 내부 시민사회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제16회 북한자유주간 3일째인 4월 30일 오후 2시(현지시간)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에서 ‘북한 인권과 안보 위협 사이의 정책 격차 좁히기’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탈북자 단체 대표들이 기조연설에 나섰다.

허광일 위원장(북한민주화위원회)은 “북핵은 김정은의 마지막 생

존 수단으로 북한 정권의 운명과도 직결돼 있으며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은 김정은 독재 정권이 종식할 때 이뤄질 것이고 이는 북한 인권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고난의 행군 때 350만 명의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는데 이 대참사에 대해 우리 탈북자들은 살인 독재자 김정일에 의한 인위적인 대학살이라고 이야기 한다”면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 해결에서 부득불 인권 문제가 중점에 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 대한 세력이 힘을 얻게 될 때 든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연설에 나선 김홍광 대표

(NK지식인연대)는 북핵과 인권 문

제에 대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면 해도 없어진다. 북한이 민주화되면 핵무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면서 “북한 정권에서 핵무기를 떼어내기 위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인권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라거나 이동의 자유, 해외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라고 하면 북한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비핵화와 장거리 미사일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전망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성민 대표(자유북한방송)는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이 안고 있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인신매매, 위조 화폐, 마약, 납치, 국군포로, 정치범수용소 등은 모두 인권 문제”라면서 “한국정부나 미국정부가 북한과 대화하면서 반드시 인권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했다. [2면에 이어서]

기독일보 제3대 이사장에 존 킴 회장이 취임했다. 2019년 4월 30일 마가교회에서 드린 창간 15주년 감사예배 및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제2대 이사장 임덕순 장로가 이임하고 제3대 이사장 존 킴 회장이 취임하고 100여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기독일보의 사역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축복했다.

이날 예배는 강태광 목사(월드쉐어USA 대표)의 인도로 시작돼 김종용 목사(나눔과섬김의교회)가 성경봉독하고 김관진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가 대표기도를 했다. 바리톤 장상근 교수(미주총신대)가 특별 찬양을 부르고 조희서 목사(서울씨티교회)가 설교했다. 이어 김근수 목사(OC목사회 회장) 현금기도를 하고 류당열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가 축도를 했다.

이취임식 및 후원이사 위촉식에서는 2대 이사장 임덕순 장로가 이임하고 3대 이사장 존 킴 회장이 취임했다. 임덕순 장로는 이임사에서 “물질세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영적 세계밖에 없다. 이 세계를 전하는 기독일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존 킴 회장은 취임사에서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교회의 연합과 회복, 하나님을 위해 더욱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수호하는 파수꾼 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내가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성구를 불들고 기독일보가 복음을 전파하는 신문이 되도록 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원이사로 서상석(Pro CAP Inc 대표), 박영희(소반식당 대표), 피터 백(엑셀프린팅 대표) 이사 등 기독 사업가들이 위촉되었으며, 한기형 목사(남가주교협 회장)와 이서 목사(OC교협 회장),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가 축사를 전했고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회장)와 이순희 목사(백송교회)가 격려사를 전했다. 마원철 목사의 축사와 안기정 목사(본지 사업본부장) [2면에 이

번역/공증/파산

법무사 ~

■ 학교설립 / 인가 전문

- 연방정부 SEVIS 유학비자 신청
- 신학/경영대학, 사립초중고교, 출스쿨링, 유치원

■ 교역자 누구나 신학사, 석사, 박사 과정 개설 가능

EG Global LDA Service

생활법률 속성해결사

T:(213)999-4379 info@wpaus .com

3407 W 6th st. #614 LA/LDA:2018047569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예배 : 오후 5:30
- 금요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7월 15일(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6월 1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기독교 방송 CBS 아메리카가 4월 27일 오후 5시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개국감사예배를 드렸다.

"CBS TV, 하나님을 지우려는 미국,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길"

기독교 방송 CBS 아메리카(Ch 18.7)가 4월 27일 오후 5시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에서 개국감사예배를 드리고 개국 기념식과 개국축하행사를 열었다.

LA복음연합감리교회 찬양팀의 찬양으로 문을 연 개국감사예배는 김영균 장로의 사회로 진행됐다.

샘신 목사가 대표기도하고 주재임 목사(샬롬기도원 원장)의 말씀봉독 후 박성근 목사가 "큰 나무의 비전"(마13:31~32)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심어지면 큰 나무로 자란다. 씨앗은 한끼 밥상에 올려지는 작은 나물이 될 수 있고,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CBS 방송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한끼 밥상 위에 오른 후 사리질 수도 있고, 위대한 나무로 쓰임 받을 수 있다. CBS가 큰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꿈을 이루길 바란다."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먼저 바른 곳에 심어야 한다. CBS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심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자라게 하신다. 두 번째는 바른 영양분이 필요하다. 교회 사역이든 방송 사역이든 훈자 힘으로 할 수 없다. 이 지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원할 때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 세 번째, 복음을 선포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길 읽은 다음 세대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에서 하나님 지우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

다. 미국이 아무리 뛰어나고 군사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을 지우면 아무것도 없다. 이 위기의 미국땅에 진리와 복음을 전해서 미국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

현금 시간에는 정경주 목사(찬양사역자)가 봉헌송을 하고, 박일영 목사(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바로 이어서 김영균 장로의 사회로 개국 기념식이 시작됐다. 한용길 한국CBS 사장은 "CBS는 한국 공교단이 연합해 세운 교계연합 선교기관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반자로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길 부탁한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와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가 축사를 전했다.

송 목사는 "군사 정권의 시대, 정부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많았음에도 CBS는 할 말을 하고 정도를 걸어왔다"며 "이민사회 자체가 말이 설고 눈이 설고 낮이 설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에는 한인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힘들어 하는 이민자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매체로서 쓰임 받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김광수 목사는 "21세기 하나님께 주신 선교도구인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개국 기념식에 이어 최인혁(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 회장)의 파워풀한 찬양으로 개국축하공연이 시작됐다. 그는 <인생한번>과 <복 있는

사람은>을 찬양했다. 다음 순서로 복회술연구소 안재우 소장이 트렁크 가방을 들고 무대에 올랐다. 그는 트렁크에서 '깡여사'라는 페퍼 인형을 꺼내더니 깡여사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공연을 시작했다.

깡여사: "당당하게 살아야 돼.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당하게 살아야지. 안그럴습니까?"

안재우: "깡 여사님은요?"

깡여사: "나는 당당해."

안재우: "왜 그렇게 당당하세요?"

깡여사: "나는 하나님의 팔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당당하지."

한참 공연을 하던 중 그는 인형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인형에게 손을 빼면 무슨일이 일어날지, 관객들에게 물었다.

"깡여사가 알든 모르든 이 모든 것은 손이 한 것입니다. 깡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송정미 찬양사역자가 '주의 성령'과 '축복송'을 열창하며,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에 CBS방송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간증했다.

이번 개국 감사예배 및 축하공연은 국회조찬기도회, LA 총영사관, 은혜한인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주안애교회 등 남가주 지역 23개 교회 및 단체가 후원했다. CBS는 1954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민영방송으로 FM, AM 라디오, TV방송 매체로 한국 복음화에 기여해 왔다.

북한자유주간 3일째인 30일 워싱턴 D.C. 해리티지재단에서 열린 북핵과 북한 인권에 대한 토론회에서 탈북자 대표들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허광일 위원장, 김홍광 대표, 김성민 대표.

[1면 '북핵해결의 열쇠'에 이어서] 김 대표는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탈북자 입장에서는 매우 긴박한 과제"라면서 "북핵만 포기하면 현재 김정은 체제도 인정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협상의 큰 골자였지만 우리 탈북자들은 이런 딜에 반대한다. 인권 문제는 반드시 거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탈북자단체 대표들은 장마당과 같은 현재 북한 시민사회에 변화와 관련, 민중봉기가 가능한 상황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해 관심을 모았다.

허광일 위원장은 "장마당을 통해 외부정보가 자연스럽게 유입됐고 이는 북한사회를 꾸준히 변화시켜 왔다"면서 "실제로 장마당을 시시때때로 단속하는데 대해 북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한 것은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 당국이 한류를 비롯한 외부 정보 반입을 막기 위해

김대원 기자



(왼쪽부터)기독일보 이인규 사장, 존 킴 이사장, 후원이사 서상석·박영희·피터 백 대표

[1면 '기독일보 이사장'에 이어서] 기독일보 창간 15주년 이사장 이취임 및 후원이사 위촉식에서 이인규 사장이 기독일보 창간 15주년을 축하하는 축사를 했다. 축사를 한 목회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역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화해의 비전을 이루는 기독일보가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길 바란다"고 말했다.

격려사를 한 목회자들은 "그 동안 남

가주 사회에 쉬지 않고 신문을 발간해온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칼보다 무서운 것이 펜이라고 했는데, 악한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신문으로 계속해서 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신임 이사장 존 킴 회장(세리토스 선교교회)은 비즈포스트그룹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본지 후원이사로 섬겼다. 토마스 맹 기자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변호인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니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2018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지원금 수여식에서 오픈뱅크 및 오픈청지기재단 관계자들과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수여식을 마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은 총 57개 비영리단체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월드쉐어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사무실 이전 감사행사를 25일 오후 5시 아로마 월셔센터 5층 대연회장에서 개최했다.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단체 57곳 선정

8년 누적 비영리단체 지원금액 253만달러, 북가주에서 시작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2018년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Open Stewardship Program)을 통해 비영리단체 57곳을 선정해 지원했다.

매년 커뮤니티를 향한 사회환원에 힘쓰고 있는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 재단은 24일 2018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의 수혜단체로 총 57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금 수여식을 지난 4월 25일(목) 오후 6시에 오픈뱅크 웨스턴지점(550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에서 개최했다. 오픈청지기재단은 오픈뱅크가 매년 수익의 10%를 사회환원을 목적으로 재단에 전달하는 기부금 중에서 2018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및 기타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총 40만달러를 지원했다. 이로써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지난 8년동안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커뮤니티를 지원한 금액도 250만달러(253만달러)를 넘어

서게 됐다. 오픈청지기재단은 지난 해 10월부터 11월말까지 2018년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총 75개 단체가 신청했고 이 중 57개 단체를 수혜단체로 선정한 것이다.

재단측은 올해 심사에서도 커뮤니티의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정직하고 성실한 단체를 선별하려고 노력했으며 지난해 수혜단체들의 경우 지원금의 사용부분을 자세히 심사했고 신규 신청 단체들의 경우 단체의 투명성과 프로젝트의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018년 프로그램에서는 지난해 오픈뱅크의 북가주 첫 지점인 산타클라라 지점이 문을 열게 되면서 오픈청지기 프로그램도 북가주에 첫 지점을 오픈하면서 북가주에서의 사회환원을 시작했고 이번에 지원금도 전달했다.

올해는 오픈뱅크가 텍사스주에 진출해 캐롤턴 지점을 오픈한다. 따라서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뿐만 아니라 텍사스주에서도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를 찾아 사회환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오픈뱅크가 텍사스주에 진출해 캐롤턴 지점을 오픈한다. 따라서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뿐만 아니라 텍사스주에서도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를 찾아 사회환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쉐어 15주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전력 다하길”

‘임마누엘라’ 향한 도움의 손길 이어져

월드쉐어(굿테일 목사 설립)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사무실 이전 감사행사를 25일 오후 5시 아로마 월셔센터 5층 대연회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감사행사에서는 찬양예배와 축하행사, 그리고 만찬과 ‘임마누엘라’라는 이름의 소녀 돋기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날 1부 예배는 사회에 양경선 목사(다민족기도대회 사무총장), 기도에 헬렌 김 목사, 성경봉독에 존 강 목사(남가주 언약교회), 특별찬양에 남가주목사장로부부 찬양단, 설교에 과건섭 목사(예온장로교회), 축도에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 순으로 진행됐다.

2부 감사와 축하 순서에서는 사회에 안신기 목사(남가주교협 총무), 축하 찬양에 레위남성찬양단, 대회사에 이정숙 목사(월드쉐어 이사), 축사에 송정명 목사(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축하메세지에 권태일 목사, 동영상 산영, 광고와 인사에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 대표), 현금 및 후원금, 폐회 기도에 김영구 목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특별히 선천성 휴귀 질환을 앓고 있는 한 소녀가 나오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후원의 손길을 펼치는 시간이 있었다.

인사말을 전한 월드쉐어USA 대표 강태광 목사는 “아이티의 ‘임마누엘라’는 생후 6개월의 아동으로 선천성 휴귀 질환을 앓고 있어 먹은 음식을 토하고 있다. 아이티 김영숙 지부장이 특수 분유를 먹이며 돋고 있지만 여전히 위급한 상황이다”라며 “1만 불이 있으면 아이와 아이의 가정을 살릴 수 있다.

오전에 ‘이 아이에게 희망을 하락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줄 믿는다.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한 아이가 소망을 얻어 새출발의 기회를 갖기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 행 17:1-9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과건섭 목사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 해답이 되는지 밝히고 있다. 시대가 변해도 교회와 우리 삶에서 말씀 선포 사역이 집중되어야 한다”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은 이웃사랑이다. 교회가 전도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전력을 다하는 월드쉐어가 되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일어나길 축원한다”고 밝혔다. 팜플렛 광고 수입 및 감사예배 시 모아지는 현금 등 모든 수익금을 임마누엘라를 돋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월드쉐어는 밝혔다.

이날 행사는 목사장로부부 찬양단과 레위남성성가단이 축하찬양을 하여 은혜를 더했으며 200여 명의 하객들이 참석해서 월드쉐어의 15주년을 축하였다.

국경 없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사단법인 월드쉐어는 지난과 재난으로 고통 당하는 이들에게 민족,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사랑을 전하고 있다. 월드쉐어는 현재 전세계 26개국에 고아들을 위한 그룹 흡과 1:1결연, 지역개발사업, 의료보건사업, 식수위생사업, 교육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허기를 받은 NGO 단체이다.

전국최다 둘째카드로 출시되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H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마당축제’ 개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35회 사랑의마당축제’가 4월 27일(토), 사우스 엘몬테(South El Monte)에 있는 위티어내로우 공원(Whittier Narrows Recreation Area)에서 열렸다.

토랜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와 해피빌리지(KAVC 미주한인봉사단)에서 공동주관하고 Cadman Company와 GBC미주복음방송, Cathay Bank의 특별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사랑의마당축제에는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28개 교회와 12개 단체들이 협력하여 행사를 알차게 꾸며 주었다. 1부 순서로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카리스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에서는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사장의 환영인사와 ‘소너스 싱어즈’의 특송에 이어 고창현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가 ‘천국에서 큰 사람(마 18:1-5)’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었다. 또 내빈소개 및 감사패 증정이 있었고, ‘남가주사진작가협회’의 단체사진 활용에 이어 토랜스제일장로교회 김준식 장로가 기도해주었다.

각 부스에 마련된 맛있는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계속 진행된 2부 순서에는 댄스와 발레공연, 사물놀이 및 CCM 릴레이, 마당운동회, 선물추첨 등 각종 재미있는 게임 등으로 참석한 발달장애인들과 가족, 그리고 봉사자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주최측은 “올해도 여러 교회, 단체의 정성어린 노고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사랑의 마당축제 참여 교회와 단체들 명단은 아래와 같다.

Acts Global Church / ANC온누리교회 / 가주남교회 / 감사한인

교회 / 기쁜우리교회 / 나성영락교회 / 나성한인교회 / 남가주사랑의교회 / 남가주살롱교회 / 동양선교교회 / 드림교회 / 로템장로교회 / 베델한인교회 / 사랑의빛선교교회 / 선한목자장로교회 / 선한정지기교회 / 성마리아엘리자벳천주교회 / 세리토스장로교회 / 샌디에고한빛교회 / 에브리데이이교회 / 인랜드교회 / 은혜한인교회 / 장애우사랑교회 / 주님의빛교회 / 주님의영광교회 / 충현선교교회 / 토랜스제일장로교회 / 토랜스조은교회 / 남가주밀알선교단 / 물댄동산장애인선교회 / 샬롬장애인선교회 / 작은예수회 / 평화의집 / 한미특수교육센터 / Circle of Friends / Lanterman Regional Center / PAI / Partners for Potential / This ability orchestra foundation / Friends for special needs

강원재난피해대책 미주후원연합회를 조직하며!



청정지역 천혜강원도의 45시간의 산불은 사상자와 건물 500여채와 임야 530헥타르로,

약 축구장 740여개의 규모를 태운 큰불로, 5개 시군(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에서 동시에 일어난 산불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어 재난특별지역으로까지 선정되었습니다.

강원도 이재민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자 남가주 교계와 교계단체, 사회 일반단체들이 지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지난 4월 3일부터 모금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성금은 성금에 필요한 활동비나 사무용품 내지는 한국 방문 등 모든 제반 경비 일체를 각 단체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성금 모금 전액 100%를 모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회계 보고는 모금과 전달이 끝난 후 투명하게 보고 드리려 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대회장 : 한기홍 목사 (은혜교회 담임) • 추진 위원장 : 이병만 장로 외

강원재난피해대책 미주후원연합회 일정

- 모금 일자 : 2019년 4월 3일 ~ 5월 18일
- 모금 방 법 : pay to the order-가칭 : Bank of Hope
Acct# 6400-271-931
pay to the order-영어약자 KWDS
- 메일링성금 : Pay to order : KWDS
주소 : 6742 Sepulveda Bl. VanNuys Ca 91411
(Non Profit 구조이므로 세금혜택을 받으십니다)
- 가 두 모 금 : 1차 모금 4월 20일 (토)
2차 모금 4월 27일 (토)
- 장 소 : 엘에이 김스전기
- 시 간 : 오전 11시 ~ 오후 3시
- 가 두 모 금 : 3차 모금 5월 4일 (토)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110>

실크웨이브 미션 위의 기름 부으심

미주에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성도들이 모여 2006년도에 탄생한 실크웨이브 미션은 처음엔 터키 선교사였던 김진영 선교사를 후원하는 모임으로 출발했다.

필자는 2007년도에 시작한 터키 연합증보기도회부터 실크웨이브미션과 함께 하여 지금은 운영이사로 섬기고 있다. 이제 13년이 지나며 돌아보면 매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선교회 사역마다 넘치게 부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도 첫 번째 터키와 투르크, 쿠르드 종족의 복음화를 위한 연합증보기도회가 터키의 남부 지역인 안탈리아(성경 지명은 밤빌리아)에서 열렸다. 터키 현지 선교사들과 미주와 한국에서 모인 283명이 3박 4일간 기도와 찬양, 말씀과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그 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기억이 난다.

매년 연합증보기도회의 참가 인원은 늘어 갔고, 2010년 애베소 광장에서 모였던 연합증보기도회에는 2,000여 명이 모여 예배소의 밤을 영적으로 뜨겁게 달구었다. 그 후에도 안디옥, 앙카라, 갑바도기아 등의 지역을 돌며 매년 연합증보기도회는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연합증보기도회를 이어 받아 이제는 현지인이 주관하는 연합증보기도회로 성장했다.

그러던 중 시리아 내전이 벌발했고, 수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로 몰려 왔다. 이에 실크웨이브 미션의 사역도 방향의 전환점을 맞았다. 이제 연합증보기도회는 현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관하면서 우리는 같이 참여하였고, 터키 전역에 흩어져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돌보는 구제와 교회개척 사역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B & B” 운동이라 하여 bible과 bread의 사역으로 난민들을 돋다가 점점 실크웨이브 미션의 비전이 그 이슬람권의 땅에 교회 개척으로 이어졌다.

2019년 4월 현재 실크웨이브 미션이 후원하는 39유닛(가정이나 독신)의 교회 개척 사역자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들이 곳곳에서 열심히 교회개척 사역을 하고 있다. 터키 현지인뿐 아니라 터키에 와 있는 시리아 난민교회 개척자들, 이란교회 개척자들, 이집트 현지 교회개척자들로 여러 지역의 교회개척사역자들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후원하면서 선교회의 일이 쉼없이 발전하고 있다.

2019년도에도 지난 4월 19일, 성금요일날 터키로 향하는 선교팀을 시작으로 터키와 이집트, 이라크 지역의 선교팀들이 계속해 선교지로 향했다. 한 팀은 미주 여러 교회에서 킹덤스쿨을 통해 교육 받고 훈련 받은 킹덤아웃리치팀이다. 그들은 터키, 이집트, 그리고 쿠르디스탄 등의 선교지를 돌며 복음을 증거하고 이스탄불에서 4월 30일부터 열린 연합증보기도회에 참여했다. 두 팀은 중앙 아나톨루 지역의 페르시아권 난민들의 현지를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구제하기 위해 떠났다. 세 팀은 흑해지역을 선교하며 터키와 아랍어권 교회 개척자 가정 수련회를 참여하여 섬기게 된다. 네 팀은 터키의 동부아라트 산의 지역인 반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게 된다. 팀들은 아르메니아 지역 등을 돌고 마지막 실크웨이브미션의 리더십들은 이스탄불과 이집트에서 추가로 교회개척사역에 참여할 40번째 이후의 교회개척 사역자 가정들을 세우고 5월 말에 돌아 올 예정이다.

이렇게 이슬람권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단체로 자리매김을 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밖에는 드릴 것이 없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일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행복한 바보의사 장기려 박사



장기려 박사
월드쉐어 USA

얼마 전에 부산 출신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역만리 미국 땅에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반갑게 고향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공감대가 많았습니다. 송도제일교회, 복음 병원 등의 추억들을 나누다가 장기려 박사의 삶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장기려 박사와 복음병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권사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고 필자도 장기려 박사의 삶과 신앙을 익히 아는 터라 제법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는 탁월한 외과 의사였고,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훌륭한 교육가였고,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인자한 어른이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부러워하는 한국 의료 보험 제도의 초석을 놓으신 분입니다.

그는 1911년 평안북도 용천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이 설립한 의성학교를 거쳐 1928년 개성에 있는 송도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932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경성의전 외과학교실 백인제 교수의 조수로 의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백 교수는 장기려가 경성의전 외과학교실의 후계자로 남기를 바랐으나 그는 그 시절 엘리트 코스를 마다하고 평양으로 내려가 1940년 선교병원인 평양연합기독병원 외과과장으로 부임하여, 본격적으로 의사로 활동했습니다. 이는 경성의전 입학 당시 불쌍한 환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의전에 입학하면서 치료비가 없어서 의사 얼굴 한번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1940년 9월 일본 나고야 제국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45년 11월 북한 제1인민병원 (평양도립병원) 원장,

1947년 평양의과대학 외과 교수 겸 부속병원 외과과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이 시기에 김일성의 맹장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월남 후 195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교수, 1956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외과대학 교수 겸 학장, 1965년 서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교수, 1976년 부산 아동병원 원장 그리고 부산 복음병원 원장, 청십자 병원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1968년 한국 최초의 사설 의료보험조합인 부산 청십자 의료 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1976년 청십자의료원을 설립하여 환자 진료를 계속하였습니다. 1974년 한국 간연구회 창립을 주도하여 초대회장을 맡았고, 부산 생명의 전화 설립, 장애자재활협회 부산지부 창립에도 앞장섰던 사회 운동가요, 한국 의료 복지의 기초를 놓았던 의료인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1943년 우리나라 최초로 간암 환자의 간암 덩어리를 간에서 떼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 1959년에는 간암 환자의 간 대량절제술에 성공을 하였답니다.

그는 간의 혈관과 미세구조 등에 대한 연구 업적으로 간질환 환자들

의 고통을 덜어주었으며, 당시 미개척 분야였던 간장외과의 발전과 의료 인재 양성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적으로 장기려 박사는 1976년 국민훈장동백장을, 1979년 막사이사이상(사회봉사부문)을, 1995년 인도주의 실천 의사 상 등 중요한 상들을 수상하였습니다. 노년에는 당뇨병에 시달리면서도 백병원 명예원장으로서 집 한칸 없이 협소한 사택에서 지내면서 마지막 까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박애와 봉사정신으로 인술을 펼쳤습니다.

자신은 당뇨병에 시달리면서도 무의총을 찾았고, 가난한 당뇨병 환자들은 돌보면서 자신을 돌보지 못

하다가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에 84세의 나이로 당뇨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해 치료비를 대주며, 그나마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병원에서 몰래 도망가라고 문을 열어주고 병원 원무과 직원들에게 혼이 났었던 병원장이었습니다. 수십 년 의사 생활을 했지만 집 한 채 갖지 못하고 병원 옥상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북에 두고 아내와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독신으로 수절한 성자입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너무 그리워했지만 이산가족 상봉의 ‘특혜’는 거절했던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장기려 박사는 행복한 나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그의 진료를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장기려 박사의 인격과 신앙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나눔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실천하며 성김과 나눔의 삶으로 행복했던 사람 이었습니다. 각박한 세파에 시달리며 들려오는 잔인한 소식에 놀라면서 성산(聖山) 장기려 박사를 더욱 그리워합니다.

굿네이버스 나눔 토크 콘서트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미국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는 TimHaahs의 설립자 하형록 대표가 The Source가 주최하는 Thinkspiration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다.

TimHaahs는 세계적인 종합 주차 전문 설계 회사이며, 하형록 대표는 미국 정부 건축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꿈과 행복을 이루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회사 출범 20년 만에 미국 동부 최고의 건축설계회사 사로 성장시킨 사업가로써 겪은 경험들과 나눔에 관해서 메세지를 전

할 것이다.

강연을 맡은 하형록 대표는 현대식 주차구조의 기준을 정한 회사를 세웠다. 자선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최근 국제 연합과 다른 국제 기구들에게 주차, 기반시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세계적인 도전에 대해 나눌 예정이다.

Thinkspiration은 이민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강연이다. 지난 Thinkspiration 이벤트에는 스포츠스타 박찬호, 국민강사 김미경, 교수 데니스 흥 등이 있다. 강연은 무료 입장이다.

일시: 5월 11일 (토) 오후 5시 ~ 7시

장소: The Source OC, 694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문의: 877-499-9898, kr.goodneighbors.us, korean@goodneighbors.us



Tim Haahs 설립자 하형록 회장

Miracle! You can make it World Share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의 인생 전부가 바뀝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World Share USA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흰옷을 더럽히지 말라

요한계시록 7:9-17



본문 요한계시록 7:9-17

성경 나오는 흰옷의 상징

신약성경에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철저히 회개하여 원죄와 자범죄에서 온전히 용서받은 성결의 상태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원한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된 영적신부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구원 얻은 자의 숫자의 의미

구원 얻은 자의 숫자에 대한 숫자풀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7:1-8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이름이 열거되면서 한 지파에만 이천명씩, 십사만사천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은 유일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2는 율법에 준하는 증인을 상징하며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는 동서남북에 들어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며 5는 다툼을 통하여 전쟁하는 것이며 6은 666으로 끝나는 사탄의 숫자를 말하고 7은 삼위 하나님과의 3과 이 세상의 4가 합쳐져서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히 연합했을 때 가장 완전한 것이라고 해서 완전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은 하나님에서 열까지 꽉찬 수라 고하여 만수(滿數)라고 하고 12는 하나님과 기대하시는 수치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자 열둘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기를 기대하셨고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도 맷디아를 세우심으로 다시 열두 사도의 숫자를 세우게 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기대가 그들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구령의 성과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님과 기대하시는 수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 숫자로는 한 지파에 만이 천 명씩을 말하고 있지만 영적의미의 만이 천 명은 하나님의 기대하시고 정한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사만사천명도 문자적인 숫자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과 구령의 성과로 기대하시는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9절의 종려가지(월계수, Farm tree)는 올림픽과 월계관을 만드는 잎사귀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마11:9-10)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종려가지를 예수님이 타고 가시던 나귀가 밟고 지나가도록 길 양쪽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이것은 환영을 의

미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의 구원 얻은 숫자가 아무라도 능히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앞에 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뿐인 아들을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루도록 내어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구속하시어서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까지 상속시켜 주시려고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속 장로는 목자를 통칭

13절에 “장로중 하나가 응답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성경에 기록된 장로는 목자들을 통칭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1에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예할 자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의 동생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인 사도요한도 요한삼서 1:1에 보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 하노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장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회의 의미 : 애굽을 떠나 가나안까지

목회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선포하게 하시는 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체험을 주시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뒤에도 마귀와 짙고 죄악에 훔들리고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와서 복음의 비밀인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죄책감에 몸부림치며 진지한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망각이 폐단이 되어 자신이 잘못한 일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이라면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잊어버린 일까지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람의 입으로 시인하도록 해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이 회개는 성령이 하게 하시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 회개의 진실성은 하나님 앞에 100%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를 한 사람은 다시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해서는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하기 때문에 흰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흰 옷을 더럽히지 말라

14절에 보면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죄악에 짚은 옷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희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홍같은 붉은 피에 더러워진 옷을 씻었는데 흰옷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아직도 공중 권세잡은 마귀가 행세하고 판치는 생지옥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하얗게 입혀주신 흰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와 노력이 부단히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려 피 흘려서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시고 하얀 세마포를 입혀주신 것은 영원한 예수님의 영적 신부로 단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그분과 더불어 그분의 왕국에서 영광스러운 영적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에서 그분과의 인연을 지속하고 더욱 깊어지도록 원수 마귀들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이 마귀들이 우리들의 흰옷을 더럽히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을 하고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마귀에게 굴복하여 흰옷을 더럽히고 나면 히브리서 6:4-6에 “한번 비침을 얹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

아 현저히 옥을 보임이라”고 한 말씀처럼 다시는 그 인생을 회개하게 할 제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의 인연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목자를 주신 것에 감사

만약 목자가 없고 교회가 없다면 인생은 넘어지기 쉬울 수밖에 없고 천국에 가기 전에 마귀가 흰옷을 걸레처럼 더럽혀서 지옥에 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교회와 목자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목자가 진리정통하고 성령 충만하여 내세소망 절대적인 신앙으로 이끌어 준다면 이 시대에 참으로 복된 성도일 것입니다.

현세가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불행한 상황 속에서 더욱 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흰옷을 더럽히지 말고 믿음의 정절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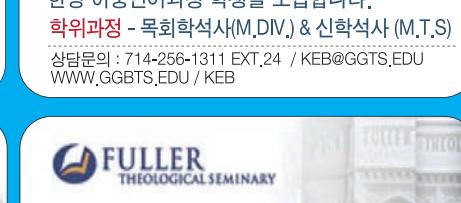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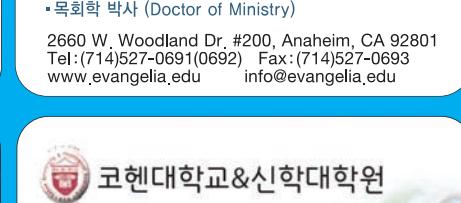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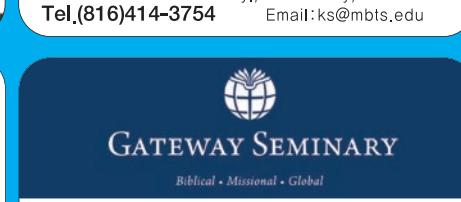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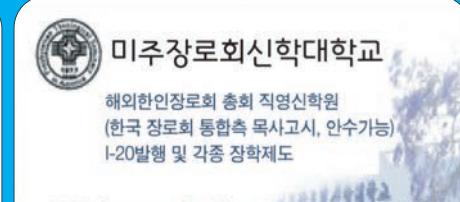
그러면, 본문 15절 이하와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아 세마포로 단장한 흰옷을 절대로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는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육체적인 모든 고통들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신앙이 변절되면 그 흰옷은 금방 더럽혀지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현세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힘 있게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희어진 흰옷을 절대로 더럽히지 말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독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동부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동부 오후 9시	AM1310 LA 미주 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https://www.youtube.com)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킬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어머니 사랑해요!”

50% - 80%까지
폭풍세일!!

‘와싸다’

반지천국 초저가 라인 종출동 퍼레이드!!



‘물반 고기반’ 최저 59불 부터 시작,

어버이날 맞이 공짜선물 이벤트!

500불 이상
구매고객

두줄 진주목걸이 증정

선물용으로 좋은
핵진주 반지, 브로치

고베필이 마련한 경제적인 가격대의 일본산
핵진주 브로치와 반지 귀걸이등 마더스데이
2019년 신제품 최고의 선물!



경제적으로 부담없는 가격대의 제품부터 최고급 프리미엄 제품까지!!
총 3000여점의 다양한 제품 전시 할인판매!!



Helen Aiko 명품
진주 전시판매



진주 목걸이 펜던트 및 귀걸이 칼라스톤
호박세트등 신제품 500여점 대거출시



봄맞이 패션 팔찌,
반지 등 신제품 대거 출시



마더스데이를 맞아 한국세공의 부담없는 가격대의 선물용 합성 칼라스톤 특별 기획전이 펼쳐집니다.
500여점의 다양한 디자인의 고베필 칼라스톤 신제품을 만나보세요!

엘에이 한인타운 일정안내
일시: 5월 9일(목)부터 11일(토) 단 3일간
장소: 로텍스호텔 2층 특설매장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올림픽과 그레마시)

부에나팍 일정안내
일시: 5월 12일 (일) 단하루
장소: 홀리데이 인 부에나팍 (91번과 비치 만나는곳)
Holiday Inn Buena Park Garden 1 Room
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KOBE JEWEL GROUP
Rings Heaven



SOPHIA Y KANG
GEMMOLOGICAL INSTITUTE OF AMERICA®
미국 GIA 진주보석 감정사 매니저가
고객님의 합리적인 소정을 도와드립니다.



각종 신용카드 환영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수잔 솔티 여사가 현장을 찾은 많은 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모습.

“먼 이방의 땅의 자유 위한 미군의 희생 잊지 않을 것”

제16회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28일 공식 개막된 가운데 수잔 솔티 여사를 비롯한 대표단은 오후 일정으로 3시경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현화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위해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한자유주간이 워싱턴DC에서 개막되는 해에 대표단은 반드시 첫날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아 현화하고 있으며 이날도 북한자유주간 참가자 및 대표단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아 현화하며 ‘자유북한’이라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대표단은 기념공원 한 가운데 조성한 강철로 만든 19개의 미군 병사 조형물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

였다. 특히 현화식에서는 전 북한군 출신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자유와 통일을 위해 결성된 북한인민해방전선 소속 탈북자들이 군복을 입고 미군들의 희생을 기렸다.

북한인민해방전선 최종훈 사령관은 “6.25 당시 미군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먼 땅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했고 결국 수 많은 이들이 자유를 위해 용맹스럽게 피흘려 싸우다 죽었다”면서 “이 자유를 위한 값진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공원에 위치한 참전용사 추모비에는 ‘자유는 거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김대원 기자

“미주 한인교회, 세상적인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워싱턴주 은퇴목사회 정기모임

워싱턴주 은퇴목사회(회장 문창선 목사)는 지난 23일 헤드럴웨이 해송식당에서 4월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미주 한인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날 설교한 허인회 목사는 창세기 48:17-20절을 본문으로 ‘내 아들아 나도 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중 이스라엘의 전통인 장자가 모든 축복을 계승하는 장자권의 법칙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에브라임을 더 축복한 사실을 들어 “야곱의 축복은 세상적인 방법, 즉 맘모니즘의 방법을 따라 축복하지 않고 오직 신령한 영의 눈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했다”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와 선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목사는 “미주 한인 교회 목회자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영안이 밟아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한과 사역을 위임한 후 겸손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듯이 품어주고 기도하는 삶을 살자”고 당부했다.

이후 기도회를 통해 육신이 지치고 병든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며 종무 허인회 목사가 회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면서 친교를 가졌다. 한편 워싱턴주 은퇴목사회는 “은퇴한 목사는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소개하며 회원 가입을 원하는 은퇴 목사는 종무 허인회 목사(404-932-2729)에게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풀 원 기자

재미 고신 북서노회 최병걸 목사 신임 노회장 선출



제 44회 재미 고신 북서노회

재미 고신 북서노회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헤드럴웨이 제일장로교회(담임 최병걸 목사)에서 제 44회 노회를 개최했다. 노회원들은 투표를 걸쳐 신임 임원진으로 노회장에 최병걸 목사, 부노회

장에 한만수 목사, 서기에 조상우 목사, 부서기에 이병조 목사, 회록서기에 흥건 목사, 부회록서기에 채수창 목사, 회계에 임종학 장로, 부회계에 김문영 목사를 선출했다.

교회 및 선교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산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 백송교회
백송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끓 푸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밀蹉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아침예배 오후 9:00

써너김 담임목사

LA 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2부예배 오전 9:45(자녀예배 오전 9:30)
3부예배(찬양대예배) 오전 11:30
대한현대부(EM) 오후 2:00
수요봉보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LA 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여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Blvd. 교회)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 세계선교교회
3407 W. 6th #412 (6기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7: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중고등부 오후 7:0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토) 오전 6: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5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기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상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로 위에 새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후 11:00 하이很差예배 오후 12:30
천일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6:00(토)
유초등부 오후 11:00
중고등부 EM 오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5:30(화~금)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4부예배 오후 6:00(토)

자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기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www.churchla.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6:00(토)
유년수학교육 오후 11:00 금요양광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담임선교 전도사
행정 안기정 목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1818 S. Western Ave., LA, CA 90006
T. (213) 352-2823 www.maga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5:30(화~금)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4부예배 오후 6:00(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 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869-6590, (213)20-7240 Email : lasehil@gmail.com
(3기) Westmoreland 크리스 First Baptist Church 인해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화~금) 6:00(토)
유년수학교육 오후 11:00
중고등부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새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설왕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www.lasaeah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7:30
영유아 유초등부 오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EM 영예예배 오후 10:00
2부예배 오후 11:15 새벽예배(화~금) 6:00(토)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후 11:00
중고등부 EM 오후 12:3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30

박은종 담임목사

온리피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화~금) 6:00(토)
금요예배 오후 7:30
리세예배(열린예배) 스케레실 오후 11:00

김종호 담임목사

온리피장로교회
복음을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E. isaacdew@hotmail.com

주일학교 오후 8:30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박효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213) 831-9490

주일부예배 오전 8:00 E.M.(대,침)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국기독교주일 모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6:30(화~토)
유도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6:00(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삶,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친구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 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화~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d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갓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유아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세례 받아 함께 일려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회 오전 9:15-10:00(주일)
수요예배(금) 오전 8:45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30(분~토)

뉴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은철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화~금) 6:00(화~토)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시경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2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여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3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춘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참대교회 사람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8:0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전 7:30(화~금) 汉语查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주일예배 오전 9:30(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최승목 담임목사
오전 11시(본성전) 매일OT 월~금 오전 6:00
분신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회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 예배 오전 8:00 EM예배(1부) 오전 9:00 송재호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2부) 오전 11:00 이정현 담임목사
금요예배회 오전 5:30(화~금)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JC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종교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30 한인부 오전 12:30
EM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방수민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그룹(금)
유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전 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화교류를 통한 교회 천미하는 교회
2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bkhchurch.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9:30 사립의 빛 밤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예배 11:30 금요방상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1부) 오전 9:0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2부) 오전 11:00
금요예배회 오전 5:30(화~금)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체플 Valley Chapel 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el. (818) 363-5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0:0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na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1911 F. (818) 549-1911 www.choonghyun.org

“음란한 큐어축제의 본질은 차별금지법 제정”

6월 1일 대한문광장에서 반대 국민대회 개최



국민대회 준비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이하 국민대회)가 오는 6월 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대한문광장에서 열린다. 5월 31일부터 이를 간 서울광장에서 열릴 서울퀴어문화축제 때문이다.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대회 국민대회 취지와 그 개최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먼저 국민대회 취지에 대해 조영길 변호사(조직 위 전문위원장)는 “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와 평등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지만, 그 실상은 전혀 다르다”며 “인권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선정적이고 음란한 공연과 행위들이 남녀노소 서울시민들의 쉼터인 서울광장에서 온종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서울광장에서 결코 허용될 리 없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공연과 행위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비호와 서울시의 지원 아래 대낮 도

김진영 기자

황교안 대표

“북한 인권 개선이 통일의 지름길”

영화 <퍼스트 스텝> 상영회서 역설



(왼쪽부터 순서대로) 최공재 감독과 김성민 대표, 김규민 감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북한 인권 개선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영화 <퍼스트 스텝> 제작진을 향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도 북한의 인권 지옥 참상을 호소하며 자유를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신다”며 “동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시는,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상영회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박인숙 국회의원, 한마음프로덕션의 주최했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영화예술인들의 모임인 ‘씨네마당’이 주관했다. 황 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탈북민으로 이번 영화를 연출한 김 규민 감독은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영화”라며 “한국에 와서 제일 활동했던 게 김일성과 김정일의 죽음은 모두가 떠들면서도 북한에서 죽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다. 이에 그 참상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하자는 목적으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다. 영화 제작에 참여한 탈북민 김성민 대표(자유북한방송)는 “왜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은 남한에 가서 무얼 했느냐?’라고 물을 때, 그래도 ‘당신들의 자유를 위해 썼다’고 말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게리 하우겐 대표.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Rodrigo Valera Photography

“대규모 세대적 이동, 복음주의 내 정의의 관점”에 변화 일으켜

게리 하우겐 대표, 페이스 앤글 포럼에서 강연

국제 인권 단체인 IJM(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의 게리 하우겐(Gary Haugen) 대표는 “대규모의 세대적 이동이 정의의 문제를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마이애미 비치에서 진행된 페이스 앤글 포럼(Faith Angle Forum)에 참석한 하우겐 대표는 ‘장기적 관점에서 본 세계적 빈곤과 정의’(Global Poverty and Injustice: Taking the Long View)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이곳에 거대한 세대적 이동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가 참석한 페이스 앤글 포럼은 종교적 신념과 공공의 삶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돋기 위한 모임으로 마이애미 비치에서 1년에 2번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하우겐 대표는 “1990년대 처음 IJM 설립을 도울 때,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의의 문제에 관해 의구심을 가졌다”면서 “정의를 원하는 우리의 제안들과 가난한 자들, 학대와 압제 받는 자들을 위한 우리의 싸움을 좌파적인 정치에 어젠다, 진보적인 신학으로 여겨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제는 주류 복음주의 안에서 이러한 신학적 반대는 없어졌다고 믿는다. 특별히 40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의 경우, 더 이상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에게 정의에 관한 실제적인 대화가 없다면, 당신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젊은 복음주의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들은 현재 교회 공동체나 복음주의 단체의 대표가 아니며, 돈과 권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나 15년 안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차원이 다른 현상들을

강혜진 기자

“인종 화합을 향한 미국교회의 긍정적 발걸음”

락 교회 마일즈 맥퍼슨 목사, 현지 언론과 인터뷰



마일즈 맥퍼슨 목사.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미국 락 교회(Rock Church)의 마일즈 맥퍼슨(Miles McPherson) 목사가 “미국 교회가 인종 화합을 향한 긍정적인 발걸음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맥퍼슨 목사는 최근 진행된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백인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인종적인 화해를 위해 협력해 왔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제 백인교회와 목회자들은 이같은 논의가 수용할 만한 것임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맥퍼슨 목사는 앞서 ‘더 서드 옵션’(The third option)이라는 책을 통해 인종차별

에 대한 자신 만의 관점을 소개했다. 그에게는 2명의 흑인 할아버지가 있었다. 할머니 한 분은 중국과 아프리카계 혼혈인이었고 한 분은 백인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너는 흑인이 아니야’라거나 ‘너는 백인이 아니야’라는 말을 듣고자랐다.

저서에서 그는 “이것은 내 평생에 짐이 되었고, 나의 열정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마침내 이 문제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사우스 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이침 성경공부 10:40 이효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승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석부 담임목사
2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들어가는 교회 (제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김준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기자,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기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장로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424) 257-8169 / F.(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온혜로교회

새희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t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이효우 담임목사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밤이야 함과 같으리라(골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명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보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친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on.com

주일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1:3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30
주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집으로 오병이야기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예배 오전 9:00 윤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토 오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교되는 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주일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11:00 영어중부 예배 오전 9:30, 11:30
주일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O.C. 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독도목회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이영이 담임목사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후 5:30

구봉주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m9191@yahoo.com

금요찬양 오후 7:30
제4회인재배 오전 11:30
영어중부 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구봉주 담임목사

민경업 담임목사
2부한국어 예배 오후 11:00 말씀교실상새벽기도회 (월~금) 오후 5:30
3부영어 예배 오후 1:30 한국학교(교) 오후 9:00
주일학교 오후 11:00 Young Orchestra(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후 6:30

한국예배 오후 7:30
제4회인재배 오전 11:30
영어중부 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나침반교회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감사한인교회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9:30 새벽기도회 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예배 오후 8:00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예배 오후 8:0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 ~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김성원 담임목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우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이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분
주요예배 오후 7:30(화~금)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00 (영어예배)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일문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새벽기도회 오전 9시 30분(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9시(목) 새벽기도회 오전 6시(화~토)

람학준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의 기쁨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상예배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어,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동부 예배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부부 예배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C대학원부 예배 오후 2:0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더불어를 세우고 복음을 더하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부 예배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김인철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 예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최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예배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부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어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info@Potters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 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on@hanmail.net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o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UNG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oh.org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pendoor.church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북한 정권은 악마적... 자유 운동은 영적 전쟁”

[2019 북한자유주간] 한국전 용사 기념공원 현화

제16회 북한자유주간 이틀날인 29일 오후 5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종교와 민주주의연구소(The Institute on Religion and Democracy)에서 북한자유주간 환영 리셉션이 진행됐다.

북한자유주간을 위해 한국에서 온 대표단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서 북한자유연합 수잔 솔티 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저마다 신앙적인 발언들을 이어가며 북한 자유를 위한 현재 활동이 곧 영적 싸움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호스트를 맡은 종교와 민주주의연구소 페이스 맥도널드 소장은 북한자유주간이 처음 열렸던 2004년부터 이 행사에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다. 그는 북한자유주간 참가자들을 향해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역사해 달라”면서 “저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마다 마음이 변화되고 북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마음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축복했다. 수잔 솔티 대표는 북한자유주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주간이 아닌 일간 행사였다고 설명하면서 “당시 북한을 위한 기도와 금식으로 하루를 살았다. 디윗의 장막에서 함께 했다. 북한자유주간은 하나님의 행사로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현 북한 정권은 악

마직”이라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한국이 독립운동을 할 때 기독교인이 주축이 됐었고 이런 기독교의 힘을 김정은은 두려워 한다”고 말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의 허 광일 대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이 북한자유주간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면서 “지금 비록 위기에 처해있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에 세워주신 나라”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 있는 3만3천여 명의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들의 목숨을 걸 것”이라면서 “김정은 정권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북한인민해방전선 최정훈 대표는 “대북 라디오로 계속 성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주민들 속에서는 지하에서 삽 삼오오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전달하는 것 만이 수령을 신으로 믿는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그 구속에서 벗어나는 방법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원 기자

“장마당, 북한 시민사회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



CSIS 빅터차 석좌교수(오른쪽 첫 번째)가 북한 장마당 매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제16회 북한자유주간 둘째 날(29일), 워싱턴으로 공식 집계된 북한 내 장마당이 436개이며 비공식 수까지 합치면 1천 개에 육박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는 북한 내에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이다.

현지시간 이날 오후 2시부터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북한 내 여성과 장마당 매커니즘’이라는 주제로 위크숍이 진행됐다. 이를 주관한 빅터 차 교수는 첫 번째 세션 ‘북한 내 시장과 시민사회’ 발표를 통해 위성사진으로 분석한 436개의 북한 장마당 실태를 분석했다. 그는 “북한 시민들이 오직 정부의 통제에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닌 그들 스스로 삶을 결정하게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에 따르면 CSIS는 기차역이 지역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판단, 북한의 모든 기차역 주변 지역을 분석했고 기차역과 시장간의 거리를 계산해 장마당의 위치와 개수를 파악했다. 차 교수는 특히 신의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장마당 형태를 분석하면서 “지역의 중심에서 5~6개로 형성된 주변 시장까지의 거리는 자전거로 30분 거리”라면서 “이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물건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시장에서의 가격 등 다른 새로운 정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류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헤리티지재단 올리비아 에노스는 “북한에서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장이 북한 사회의 평등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 당국의 방침에 의하면 결혼한 여성은 가정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직장과 일에 대해 보고 할 의무가 없다. 북한 여성의 사회와 시장 참여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여성과 정부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것은 놀라운 변화”라고 평가했다. 올리비아 에노스는 시장의 활성화가 가져오는 북한 주민들에게 끼치는 정신적 영향에 대해서도 “드라마나,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발전된 테크놀로지 등을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다양한 대안적인 생

각과 관념들을 접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북한 주민이 스스로 생각을 정립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그것을 좋은 의도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인권에 관한 책을 집필한 바 있는 미국 카톨릭대 교수 앤드류 여는 “정치학에서 이해하는 시민사회는 국가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생해 경제를 발생시키는 조직된 사회이고,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란 대중적인 두려움을 넘어서 단결된 행동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북한의 통제 안에서는 하기 힘든 일이지만 시장은 정부의 눈을 피해 상호교환과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장은 서로가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들을 형성하게 된다”면서 “북한에 시민사회가 형성됐느냐고 물으면, 그 정의상 물론 대답은 ‘아니다’겠지만, 언더 그라운드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앤드류 여 교수는 또 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북한의 민간 통제 시스템 악화와 관련해 “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CHRISTIAN BUSINESS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제단/직접제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북한, 이미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사회로”

‘북한 내 여성과 장마당 매커니즘’ 워크숍에서 탈북 여성 증언

장마당, 고난의 행군 이후 본격화...북한 경제 80% 담당 주민들 사이에 시장 활성화...부동산 중개업, 투기까지 장사는 불법, 그러나 비리를 눈감아주는 비리 발생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현지시간 29일 오후 열린 제16회 북한자유주간 ‘북한 내 여성과 장마당 매커니즘’ 워크숍에서는 세 명의 탈북 여성들이 ‘장마당’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은 북한 장마당은 고난의 행군 이후 본격화 됐으며, 국가의 강제 노역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여성들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시장으로 나선 것이 발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탈북 여성들에 따르면 현재의 장마당은 북한 경제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한 탈북 여성은 장마당의 실태와 관련 “현재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인 소비자 시장, 생산재 시장, 금융 시장, 노동 시장, 주택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면서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탈북 여성은 “지금은 공식적으로 북한 내 시장이 약 500개 정도이고 매주 시장(단속을 피해 옮겨 다니는 시장)까지 포함해서 1,000개 정도 된다”면서 “중국 국경지대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들은 큰 돈을 벌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금융시장까지 형성됐다. 현재는 환전 사업까지 하는 큰 손들도 출현했다”고 했다.

아래는 이날 워크숍에서 탈북 여성들이 장마당에 대해 발표한 내용.

여성1: “실제 사회,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라, 사회주의의 가식”

1996년 여름에 제가 장마당을 처음 경험했다. 배급소에서 쌀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주린배를 잡고 계속 일을 해야 했다. 북한에선 아내들은 직장이 없으면 집에서 쉬어도 되지만 남자들은 무조건 나가서 일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그러나 고난이 시작되면서 나라에서 배급을 하지 않아도 남자들은 일을 해야 했고, 그런 계기로 집에 있는 여성들이 대신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제가 맨 처음 장마당을 경험한 것은 북한의 가뭄이 절정이었던 때이다.

저는 당시 중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직장을 갖게 되었고 실제 사회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얼마나 다른지, 사회주의의 가식을 알게 됐다.

당시 사람들은 짚주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집에 있는 장롱이나

숟가락 젓가락 등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기 시작했다. 북한 당국은 처음에는 썩어빠진 자본주의 정신을 뿌리 뽑고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단속을 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팔던 걸 들고 도망 다녀야 했다. 이런 장마당은 ‘메뚜기 장’이라고도 불렸다.

그러나 장마당이 점점 활성화 되었고 북한당국은 1999년 사람들이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 수 있게 하였다. 안전부는 대신 자릿세를 받기 시작했다. 당시 제 친구 중에 부모님이 쌀을 구하러 다니다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어 장사를 시작한 이가 있는데, 싱글 여성은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몰래 장사를 하며 매일 쫓겼고 팔던 물건을 뺏기기도 했다. 결국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한 후에야 장마당에 살 수 있었다.

북한에서 유치원에서 일했던 저도 주말엔 장마당에서 일했다. 푼돈을 겨우 버는 걸로 생계가 어려워 돈을 더 벌기 위해 디젤 오일을 팔기 시작했다. 김정은의 단속을 피해 디젤 오일을 팔았다. 걸리면 사형당할 수 있었지만 이윤이 많이 남았기에 사람들이 많이 팔기 시작했다. 저도 디젤 장사를 시작했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하지만 몇 달 뒤 디젤유를 팔던 주민이 사형에 처해지면서 주춤하게 되었다. 김정은의 선물을 팔았다는 죄로 사형을 받은 이들도 있다.

여성2: “북한, 돈 있는 사람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1997년 담배장사를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을 살았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담배를 남자들에게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 마음을 놓고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담배 파는 행위가 발각되면 경찰들이 물건을 회수하고 막았기 때문에 경찰 눈을 피해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장마당에서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역전을 돌며 하루하루 살았다.

이미 북한은 돈 있는 사람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활성화 되어 있다

는 것이다. 부녀자들은 다른 곳에서

쌀과 음식을 받아 그것을 팔아 하루

하루 장사하며 살았다. 다만 마음 놓



현재 북한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다는 물건들 ©기독일보

고 팔 수는 없다. 경찰들이 물건을 회수하고 돈도 다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항상 경찰 눈을 피해야 했다.

물건과 돈을 빼았기면 집안이 굽는 것이 생활이었다. 그래서 북한 여성들은 강해져야 했다. 다만 경찰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살아야 했다. 바칠 뇌물이 없으면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야 했다. 또한 도둑들이 많아 물건을 빼았기기도 했다. 마음 놓고 장사하는 그날이 오길 소망하면서 살았다.

여성3: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 고위 층에겐 아무 의미 없어”

2003년 7월 제가 탈북할 때도 장마당이 있었는데 최근 북한의 장마당에서 판다는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저는 북한에 살 때 계급적 토대가 좋아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당의 보호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살았고 충성을 다짐했었다. 그러나 300만의 북한 주민이 굽어 죽자 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고난의 행군이 자본주의를 북한 주민들에게 심어준 계기가 됐다. 김일성의 죽음은 ‘그도 인간이구나, 김정은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었다. 94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70, 80년대는 농토산물 시장 밖에 없었다.

당시 시장은 아무 볼거리 없는 곳이었다. 그러던 1995년 고난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시장의 가치를 알아가고 굽어 죽는 집들이 늘어나고 동네에는 술장사와 두부를 만들어 파는 자들이 많아졌다.

여성들이 집에서 만든 식량을 역

근처에서 파는 것을 계기로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다. 가족을 살리기 위

해 자신의 식량을 바꿔가는 물물교

환이 이뤄지기도 했다. 처음에는 돈

이 될 수 있는 집안의 물건을 팔다

가 기차를 타고 팔 물건을 구하러 다녔다. 더 나중에는 바다에서 쌈 물고기를 사서 비싸게 팔았다. 여성 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움직였다.

중국 국경지대에서는 친척방문을 구실로 보따리 시장에서 도매로 물건을 사서 파는 장사꾼들이 늘어났다. 이 때부터 없는 것이 없는 시장이 되었고 자본주의 시장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북경에서부터 들어오는 물건들을 운송하는 장사꾼들이 늘어나는데 중국 물건을 가득 채워왔다가 또 갈 때는 지역 특산물인 말린 오징어 같은 물건을 가지고 가는 식이다.

당시 장사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장사를 하면 체포해 갔다. 그러나 경찰도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뇌물을 받고 비리를 눈 감아주는 범죄의 나라로 변화됐다.

장마당을 막을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을 통제해야 하는 경찰들이나 공무원들도 배고팠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에는 소비자 시장, 생산

재 시장, 금융 시장, 노동 시장, 주택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 모든 것

이 국가가 합법적으로 허락한 것은

아니고 은근슬쩍 눈감아 준 것이다.

국가 소유의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돈을 받고 국가 몰래 집을 사고 팔

면서 지금은 부동산 투기나 중개업

및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다.

생산재 시장은 수많은 중국의 원

단들로 해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옷

과 커튼 등이 필요로 했고 디자이너

들은 원단을 미상하는 여자들을 시

켜 옷을 만들고 신발을 디자인 하면

서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2002년 7월 시장 관리소가 생겨

나고 북한은 장사꾼들에게 자리세

를 받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아니

라고 생각했던 시장이 이제는 80%

의 북한 경제를 담당할 만큼 확산

되어 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시장이 500개 정도이고 메뚜기 시장까지 포함해서 1,000개 정도 된다고 한다.

처음에는 보따리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물건을 화물차로 나르는 일꾼들을 고용하기도 한다. 국가의 운송수단을 믿을 수 없던 사람들은 물건을 경쟁자들보다 더욱 빨리 운송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화물을 운송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만들어낸 버스와 택시가 운행되기 시작했다.

중국 친척의 물건을 도매로 팔아 주던 자들은 이제 물주가 되어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물건을 팔고 중국으로 돌아가려면 중국 돈으로 환전해야 하는데 개인들이 주변에서 환전을 시작했고 이들이 북한의 재벌로 성장했다. 그들은 앉은 자리에서 돈을 바꿔주면서 신용사업을 하고 있다.

돈이 사람과 직업 만들었다.

이런 시대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북한 최고 대학이라 불리는 김일성대학에 입학했다. 입학하면서 돈의 용도에 대해 또 권력에 대해 사심을 가지게 되었다.

돈이 사람을 만들고 직업을 만들었다. 간부의 자식이 90%인 우리 대학생들은 배고픔도 몰랐고 죽을

여러 분 사람들이 없었다. 죽어가는 북한의 주민들이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방학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놀란 것은 국경이었던 고향의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었고,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물주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가족 백그라운드가 안 좋아 대학도 못 갔던 친구는 장사를 시작해 아파트까지 사게 되었다.

강영숙 기자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19년 봄학기 학생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

에서 2019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집 과정

◇학사 과정 (B.Th/B.A)

-신학사

-선교학사

-기독상담학사

-기독교육학사

◇석사 과정 (M.Div/M.A)

-교역학석사

-신학석사

-선교학사

-기독상담학사

-기독교육학사

◇박사 과정 (D.Min/Ph.D)

-신학박사

-선교학박사

-기독상담학철학박사

-기독교육철학박사

수시 입학 가능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등록상담전화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A. CA 90057 | TEL: 310-678-6836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참,(진리의 길) 왁,(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신학대학원

본교 지원시 특전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 가능

2)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 수여 가능

3)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

(학점교환 가능)

수시 입학 가능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 213-272-6031

“가장 힘들고, 낫고, 고통 받는 아이들 섬길 수 있어 행복”

월드쉐어 이정숙 이사, 이지은 과테말라 지부장

4월 25일 월드쉐어USA 창립 15주년 감사예배를 위해 한국 본부에서 이정숙 이사가 월드쉐어USA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정숙 이사는 목사로, 과테말라 선교사로, 월드쉐어 과테말라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힘차게 활동했으며 현재는 월드쉐어 이사로 일하고 있다. 이번 그의 방문에는 월드쉐어 과테말라 이지은 지부장이 동행했다. 4월 23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정숙 이사가 월드쉐어에 대해 소개했다.

“월드쉐어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한 국제구호개발 NGO이며, 순수 한국 NGO이다. 한국국제외교통상부 소속이며 인종, 국가, 종교를 초월해서 전세계에 고통당하는 이들, 어린이들, 재난 당한 이들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사업으로는, 첫째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지난으로 인해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식수 사업을 진행한다. 집을 개조하고 지붕 설치 등 지역 개발사업, 재난을 겪었을 때 최대한 빨리 나아가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5~10명 사이의 부모가 없는 아이들, 부모와 같이 살 수 없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3살부터 18살까지 키우는 그룹홈을 운영한다.

월드쉐어는 전체 국내 5개 지부, 해외 15개 지부, 협력자 30개 나라, 50만 정도의 간접 수혜자가 있다.”

이정숙 이사는 월드쉐어의 사역을 하며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 일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누군가는 아파하는 사람을 도와야 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한국에서 목회하고 과테말라로 가서 16년 간 선교를 하며 가장 소외된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다. 그러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한국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과테말라가 고지대라 몸에 무리가 가서 더 이상 거기서 활동하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됐다. 그때 권태일 목사님께서 월드쉐어 이사직을 제의하셨다. 권 목사님은 월드쉐어를 시작하기 전에 ‘즐거운 집’(1987년 설립)이라고 장애인, 고아, 노인, 거리에 벼려진 사람들을 한 집에 데려다 돌보고 계셨는데 그때 봉사를 하러 다녀서 친분이 있었다. 지금은 월드쉐어의 총괄 이사로 활동하신다.

전세계에 가장 고통당하는 이들을 돋기위해 다니기 때문에 그게 제

계는 큰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과테말라에서의 활동

다음으로 이지은 지부장에게 과테말라의 활동에 대해 들었다. “월드쉐어의 기본 사업인 아동결연 사업을 하고 있다. 저개발국가의 아동과 후원자가 결연을 맺어, 교육비, 생계비, 의복,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의료지원 사업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도시민지역에 침술봉사를 간다. 그리고 공부방 사업을 하고 있다. 방과후 활동으로 시작했는데 장애가 있거나, 가정형편 어려워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오게 됐다. 올해부터는 중증 장애 아동 데이케어 놀이방을 시작했다. 앞으로는 저희가 공부방이나 교육지원사업을 늘려 가려 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화산 폭발로 재난이 닥쳤을 때, 긴급구호 사업을 시작했다. 과테말라뿐 아니라 과테말라 주변의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과테말라 지부를 넘어서 중남미 모든 일대를 지원할 계획도 하고 있다.

2011년부터 월드쉐어 협력자로 일하며 사역지 아이들을 결연을 시켜서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월드쉐어가 중남미에 지부를 세우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저에게 지부장 제의를 하셨다.”

시청, 관공서와 MOU

이지은 지부장은 치안이 불안한 과테말라의 특수성 때문에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안이 불안하고, 대부분 우범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청과 관공서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청과 관공서와 MOU를 체결한다. 그러면 경찰 인력이이라든지 지원을 해준다. 가끔 우범지역에 들어가 지원을 하는 저희를 보며, ‘위험하지 않느냐’고 묻는데, 시청 관계자들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고, 또 관공서와 함께 하고 있다. 것에서 공신력 있는 단체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도 된다.

한국 분들이 도움을 주시지만, 현지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현지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마음을 여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한국 분들은 대신 재정적인 도움을 해주시고 계시고, 한인회에서도 도움을 주시며, 현지 봉제업체들은 아이들에게 티셔츠 2~5천장을 지원해 주셨다. 차차 외연을 확장하고 현지의 도움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현지 장애인 업체와



월드쉐어USA 창립 15주년을 맞아 한국 본부의 이정숙 이사(가운데)와 과테말라 이지은 지부장(오른쪽)이 LA를 방문했다. 이정숙 이사는 힘들고 고통받는 이를 돋는 일이 누군가를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사진 왼쪽은 강태광 목사.

MOU를 할 계획이다.

과테말라 이지은 지부장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수상

이지은 지부장은 2018년 12월 12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주관 하에 ‘제13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해외에서 일 년에 9명에게 수여된다.

“과테말라 선교사로 사역하며, 월드쉐어에서 일하며 꿈꾸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여러 일을 할 수 있었다. 그 중에 지난해 과테말라 후에 화산이 분출하면서 아직도 이재민이 3천명 정도가 대피소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탁상공론이 아니라 그곳에 정말 가 보자’는 생각에, 긴급재난 안전청에 가서 수장을 만나서 현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위험해서 절대 안된다’며 허락 해주지 않았다. 그래도 계속 부탁했더니 허락을 해줬다. 한참을 올라가고 있는데 소방차들과 안전요원들이 이 역주행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소방차 한 대가 저희를 갑자기 막아서며 ‘2차 폭발이 일어나서 그곳에 있던 구조대로 철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눈빛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눈빛이었다. 영화 부산행에서 본 좀비에 쫓기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 듯 했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람들과 차량이 거리에 가득 몰려 오고, 핸드폰 신호가 다 끊기고, 차들의 행렬이 거리에 가득 차,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립됐다.

그날 이후로 그 도로 자체가 폐쇄됐고, 저희는 재난안전청으로 돌

아가서 현지 재난안전청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정말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를 고민하고 논의했다.

저희는 구조 장비를 지원했다. 화재사고가 끊기워 군화도 단 30분이 지났을 뿐인데 다 녹아서 신을 수가 없게 됐다. 안전화, 헬멧 고글, 무릎 보호대 같은 장비를 준비해서 재난 안전청을 통해 소방대원들에게 전달했다. 그게 과테말라 현지에서 화제가 되었고, 저희 유니폼에 태극기 가 있었는데, 한국 구조단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한국 대사관에서 저를 추천해 주셨다. 저는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상을 받게 되었다.”

이정숙 이사 : “내가 볼 때는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테말라에 가보면 많은 이들이 이지은 지부장을 좋아한다. 현지에서 이미 쌓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상을 받은 거라 생각한다.”

이 아이가 분명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생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

월드쉐어 구호 현장을 전하는 이정숙 이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사역을 다니는 곳은 가장 힘들고 가장 낫고 가장 고통 받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를 물질은 모두 내려 놓고 살던 사람인데, 한두번은 그런 곳에 가면,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가서 봤을 때, 이 아이가 분명히 사람으로 살려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서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이런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많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 기가 막힌다. 그랬을 때 제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아이 한 명이라도 더 도울 수 있을까에 많은 사람들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제 주변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욕심이 많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다. 후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도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다. 제가 성격이 쾌활한 사람인데 그런 데 다녀오면 3일 4일 우울증이 온다. 그런 곳만 일주일동안 보니까 세상이 참 공평하지 않다. 한국에서 버리는 음식이 허다한데, 지구 다른 한 편에서는 빵 한쪽이 없어 숨을 헐떡이면 겨우 연명해 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에 슬플 때가 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 어떻게 볼까?’ 이런 신경이 많이 쓰인다.

끝으로 강태광 목사를 통해 창립 15주년을 맞은 월드쉐어USA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었다.

“2004년에 월드쉐어가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아프리카, 중남미가 급해서 미국을 세워나기지 못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15주년이다. 중남미를 책임지는, 중남미를 돋는 중개소로서 월드쉐어 USA가 세워질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흠티스, 미혼모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갖고 접근할 계획이다.”

주디 한 기자

2019 나라의 리더로 사는 법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 한국리더십학교의 필독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세 가치 차원의 놀라운 비밀. 세상과 교회로 이분화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있다.

마이클 밀러
(Michael D. Miller) 지음,
한국리더십학교 옮김 / 152면 / 9,000원

김지철(소망교회 담임목사)
임성빈(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이승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오래오래 빛으로 가슴에 남아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책

질문 있습니까?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강의한 저자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질문 6개와 사람의 질문 5개를 살펴보면서 의심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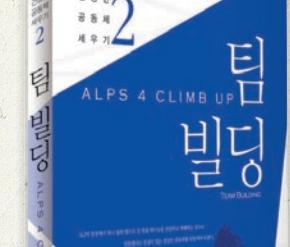
팀 빌딩

TEAM BUILDING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2

이 책은 골로새서 3장 11-17절 말씀을 본문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관찰한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있는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우리 공동체의 건강지수를 알아보고 공동체에서 나의 건강지수를 알아보는 코너도 있다.



김경한 지음 / 252면 / 12,000원

• 1장 건강한 공동체 (ALPS)

- A=Appreciation(감사)
- L=Love(사랑)
- P=Peace(평화)
- S=Service(섬김, 예배)

• 2장 건강한 공동체의 기초 (4 Foundations)

- Faith(믿음, 신앙의 근본)
- Fruits of Holy Spirit(성령의 열매)
- Forbearing one another(서로 용납)
- Forgiving each other(피차 용서)

• 3장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C.L.I.M.B.)

- C-Caring(보살핌)
- L-Listening(소통)
- I-Intercession(중보기도)
- M-Mentoring(멘토링)
- B-Boundary(경계)

• 4장 건강한 공동체의 정상 (U.P.)

- U-Unity(연합)
- P-Passion(열정)

고베쥬얼그룹의 진주 이야기! 그 탄생과 16년의 발자취

“사람이 한 우물을 판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살다보면 유혹도 많고 시련도 많아 넘어지기 일쑤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길을 걷는 것, 그것은 꿈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고객들에게 아름다움과 희망을 선물해주고 싶은 고베쥬얼그룹의 지치지 않은 꿈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지난 15년간 직수입, 직세공, 직판매 해온 진주 전문업체 ‘고베펄’이 각종 진주보석 등 총 1만여점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어버이날 맞이 감사행사를 연다.

행사는 5월 9일(목)부터 11일(토)까지 로텍스호텔 2층 특설매장(3411 W Olympic Blvd, LA, CA 90019, 올림픽과 그레머시)에서, 5월 12일 휴리데이 인 부에나파(Holiday Inn Buena Park)에서 열리며, 이번 행사에서는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가격대의 제품부터 최고급 프리미엄 상품에 이르기까지 총 3천여점의 다양한 제품을 전시 할인판매 한다. 게다가 500불 이상 구매고객에는 2줄 진주목걸이를 ‘꽁짜선물’로 준비했다.

리스베가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초저가 라인 반지천국의 이번 어머니날 맞이 진주보석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세공기술과 진

정가 1,499불하던 7밀리-7.5밀리 진주 비드 두줄 목걸이를 단돈 259불에 판매하는 놀라운 세일을 펼치 기로 했다. 셋째로는 정가 1599불 짜리 8밀리에서 8.5밀리 비드 목걸 이를 299불에 헐값 처분한다. 그야 말로 초저가 라인 반지천국이 출범하면서 행사장은 진주보석이 물반고기반으로 어머니날을 맞아 귀한 선물 준비에 안성맞춤으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최근 출범한 고베쥬얼그룹의 프리미엄 라인인 헬렌 아이꼬의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3종 세트진주보석도 빠짐없이 전시돼 눈부신 불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반지천국은 특히 최근 큰 인기를 끌면서 강남 세공 사파이어와 루비, 에메랄드 등 유색 보석은 50%에서 80%까지 특별 세일을 해 어머니날을 맞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날 맞이 선물을 아직 정

내 보석상들의 요청으로 일본 진주를 구입해 가져다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그녀가 진주와의 인연을 맺게 된 계기다.

세월이 흐른 후, 본격적으로 뉴욕에서 소규모로 진주사업을 시작했으나 진주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사업을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의 도전은 끝나지 않고, 2004년 라스베가스로 건너가 ‘고베펄’이라는 이름으로 재도전한다.

미주 전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대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4년 내내 적자를 면치 못했다. 미국 각 주마다 다른 스타일의 흐름이 있는데, 이를 따라가지 못했고 한국 여성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할 것이라는 예상이 빛나갔기 때문이다. 시행착오를 겪고 백만불 이상의 손해를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을 선택, 오늘날 고베쥬얼그룹이 탄생하게 됐다.

16년의 노하우, 진주 하나만 바라보며
16년 동안 오로지 진주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들이 버틸 수 있던 것은 ‘고객들에게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이 그룹만의 자체 제작을 통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선보이며, 여러 주를 다니며 진주 행사를 열어 고객들과 직접 만나 중간 미진 없이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이런 혜택은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단골 고객이 많은 것도, 1년에도 몇 차례 디자인을 연구해 항상 새로운 제품으로 고객들을 찾아뵙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베의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도 큰 뒷을 차지한다.

고베쥬얼그룹의 본사가 위치한 라스베가스는 세계적 호텔, 유명 브랜드 직영점이 몰려 있어 그 어디보다 앞선 디자인을 선보이는 곳이다. 그래서 다양한 영감을 받아 세련되면서도 독특한 디자인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탄생된 디자인을 한국 공장에서 제작하고, 진주의 50%는 일본 고베지역에서 직접 가공된 것들을 사용한다.

고베쥬얼 그룹의 인기 비결
뉴욕을 떠나 라스베가스로 본사를 옮긴 후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한국에서 수업하는 체제를 전면 중단하고 일본 고베에서 직접



고베쥬얼그룹이 5월 9일(목)부터 11일(토)까지 LA 로텍스 호텔 2층에서, 5월 12일(주일) 부에나파 휴리데이 인에서 가든 룸 1에서 진주보석쇼를 연다.

진주를 수입하고 한국공장과 연결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 그룹의 성공비결은 진주 제품을 패션 주얼리 대중화 한 ‘진주 비드 목걸이’였다. 이 비드 목걸이는 일본 와이어로 제작하고 특수 마감재를 사용해 아주 탄탄하고 찰랑거리는 장점이 있고 여성들의 목선을 더욱 아름답게 돋보이게 한다.

이 비드 목걸이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고, 그동안 쌓여있던 많은 빚도 한번에 갚을 수 있게 됐다. 이후 다양한 비드 목걸이를 쉬지 않고 제작했고 중국, 베트남, 알래스카, 하와이, 캐나다 등으로 시장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올해 10월에는 서울, 부산, 대전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쉬지 않고 달리는 이유

1년 내내 미국 전역에 행사를 다니고 있는 고베 그룹. 태풍, 폭우, 죽을 고비도 넘으면서도 쉬지 않고 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주 오래전 일이다. 뉴욕에서 행사를 하는데 한국에서 이민 온지 얼마 되지 않은 가족이 행사를 찾

아왔다. 그리고 헬렌 김 매니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셨네요. 제가 한국에서도 이런 행사를 본 적이 없어요. 이민생활이 녹록하지 않았는데 오늘 와서 보니 정말 자랑스럽고 힘이 됩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늘도 어디선가 자신을 기다릴 고객들을 생각하며 절대로 주저 앉을 수 없다며, 오늘도 고객들에게 아름다움과 희망을 선물해 주고자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진주보석 쇼 일정은 다음과 같다.

엘에이 한인타운

일시: 5월 9일(목)부터 11일(토)
장소: 로텍스호텔 2층 특설매장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올림픽과 그레머시)

부에나파

일시: 5월 12일 (일)
장소: 휴리데이 인 부에나파
Holiday Inn Buena Park Garden 1 Room (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91번과 비치 만나는 곳)



주메카인 일본공법으로 제작된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의 신제품 진주 보석류 3천 5백여점을 50%에서 최고 80%까지 특별 세일하게 된다.

특히 고베쥬얼그룹이 직접 제작 세공한 진주 목걸이 등 비드류는 무조건 최고 80% 특가 세일을 하게 되며, 한국에서 특별 세공한 진주 팔찌 등 2019년 신제품 500여점도 선보이게 되면서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반지천국의 진주 쇼에는 다양한 형태의 진주 팔찌와 반지가 대거 전시되면서 기대해도 좋다는 관계자의 말이다.

이와함께 반지천국의 3가지 업무 80%세일 특가 비드 품목은 이러하다.

첫째는 종전 499불에 파는 진주 비드 목걸이 7밀리에서 7.5밀리의 경우 80% 세일해 단돈 99불 즉 공장도가로 세일하기로 했다. 둘째는

하지 않았다면 다가오는 진주보석 쇼 행사장에 한번 들러봄직해 보인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고베쥬얼 그룹은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고베펄 탄생과 지난 16년 동안의 발자취에 대해 밝혔다.

든든한 버팀목 헬렌 김 총괄 매니저

고베쥬얼그룹이 있기까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헬렌 김 총괄 매니저가 있었다.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달렸지만 계속되는 적자에 난항을 겪던 고베펄, 그러나 그녀는 오뚝이 같은 똑심으로 일어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마다 고베펄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젊은 시절을 일본에서 보낸 그녀는 그곳에서 대학을 졸업해 일본회사에 취직했다. 취직 후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 일이 많아지고, 한국

고베쥬얼 그룹의 인기 비결

뉴욕을 떠나 라스베가스로 본사를 옮긴 후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한국에서 수업하는 체제를 전면 중단하고 일본 고베에서 직접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암 전이를 예방해주세요
헬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예고 없이 오는
헬관 질환, 노폐증, 중풍,
심장병, 치매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 각종 향암 식품으로서 최고의 효과

* 당뇨 혈당수치 정상화에 크게 도움

* 심장마비, 노폐증에 적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데 도움

* 대장에 도달해 나트륨을 배출해 내기 때문에 소변 제거 및 대장암 치료 예방에 효과적

* 햄프함초에 함유된 베타인(betain) 성분이 혈관 청소를 도움

함초는 Baja California 유네스코 지정 청정지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주의사항: 본 제품은 질병을 병리학적으로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건강보조식품입니다.

MANUFACTURED IN THE USA

신이 내린 향암식물 대마 함초환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 일본 질병원 사용하는 유명한 차연으로 제작됩니다.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간단나이트를 자연에 영향을 줄여주어 암, 노폐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약물입니다.

*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종류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복지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대마씨 햄프씨드는 미국 타이거에서 수퍼푸드로 선정

암 전이를 예방해주세요
헬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Dietary Supplement

Hemp Hamcho

Natural Mineral Glasswort

Hemp Oil & Seed Extract (Cannabidiol)

Contains 35%

1800 TABLETS

\$250 +tax

예고 없이 오는
헬관 질환, 노폐증, 중풍,
심장병, 치매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조 규 면 박사 Ph.D.

한국증인자암치료센터

Korea Particle Therapy Cancer Center

Chairman & CEO / 힐프로필 케어 개발자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 가능

SPRING SPECIAL SALE



NEW 2019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1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7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Or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4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31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8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ANTA FE SE 2.4L

Lease **\$218**
+Tax Or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6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57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PAUL KIM



MIKE LEE



JUSTIN KIL



CHARLEY JEONG



JAMES PARK



HARLEY KIM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